

##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신앙 성숙도 및 의사소통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오 윤 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신앙 성숙도 및 의사소통능력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 4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 의사소통능력,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앙성숙도는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의사소통은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순차적 매개를 통한 심리적 안녕감 결과 직접효과( $B=-.282, p<.001$ ), 간접효과( $B=.712, p<.001$ ), 총효과( $B=.430, p<.001$ )로 나타났고, 최종 설명력이 66%로 나타남으로 순차적 매개관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관계에서 직접 효과, 간접효과 순차적 효과 모두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생, 공감능력, 심리적 안녕감, 신앙 성숙도, 의사소통능력

---

\*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양교육학과 교수

• 이 연구는 2022년도 한국성서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진입기(Emerging Adulthood)인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 지연 되었던 발달 과제를 진행함과 동시에 성인기를 시작하는 과도기적 단계(feeling in-between)로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과 불안정성(negativity/instability)의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기회를 갖고,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들을 시험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Arnett, 2006: 3-29). 그리고 자신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오운선, 2019).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가운데 학업 충실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서울대학교 성인 대학생활문화원, 2015), 원만한 대인관계의 여부가 대학생활 적응(주은선, 현수경, 2005)과 더불어 졸업 이후 취업이나 사회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신현석 외, 2010).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능력개발은 대학생활 적응과 더불어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고립감이나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타인과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는 공감능력이라 할 수 있다(Kohut, 1959).

창조자 하나님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며 정확한 공감능력이라는 정신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이러한 능력을 부여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상호존중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요 13:34).

공감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성이지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아 본 배려나 존중받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공감능력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능력으로 이 시대에 새로운 경쟁력 중 하나이기에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미화, 2010). 공감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김은임, 2016; Wispe, 1987). 공감능력이 상담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Carkhuff, 1967),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소통의 질을 결정하며(이봉희, 2006), 인간관계 및 긍정적인 자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오진아, 2007), 원만한 사회성 발달과 심리적 안

녕감 향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고영희, 2011; 서보경, 2016).

하지만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관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성숙도와 의사소통을 매개로하는 연구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대학생들이 영향력 있는 복음전도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감능력과 균형 잡힌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자신 및 타인과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제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신앙 성숙도와 의사소통능력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로는 첫째, 기독교 대학생이 갖는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신앙성숙 및 의사소통의 매개에 따른 영향력을 도출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도모 하고자 한다. 둘째,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신앙 성숙도와 의사소통 능력의 순차 매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한 삶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교육과 생활지도 그리고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 의사소통능력,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은 공감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 매개할 것이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공감능력의 의미와 선행연구

공감(empathy)이란 용어가 어휘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을 정립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Rifkin, 2009). 그리고 공감((共感)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기는 Robert Vischer(1847-1933)가 1872년에 미학에서 사용한 독일어 ‘Einfühlung(감정이입)’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예술작품을 감

상하고 즐기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흠모하는 물체에 온전히 투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였다(Rifkin, 2009). 또한 독일어 Einfühlung이라는 단어는 작가인 Vernon Lee에 의해서 1895년에 sympathy(同感)라는 영어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고, 1913년에는 동감을 공감(empathy)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다.

심리학 분야에서 공감이라는 단어 사용은 독일의 심리학자 Theodor Lipps (1851~1914)가 1903년에 자신의 논문 Ästhetik에서 Einfühlung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부터이다(Lipps, 1903).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 E. B. Titchner(1898)가 1909년에 Einfühlung의 개념을 헬라어 empathia와 상응하는 empathy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심리학에서 중요한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은 인본주의 심리학자 Rogers(1957) 이후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공감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는데(Muncer & Ling, 2006), 각각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김광수와 박해연(2019)은 공감을 타인의 행동과 사고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석순(2005)은 인지적 관점과 정의적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하였다. 국외 학자 가운데는 Hoffman(2002)가 주장하는 공감을 요약하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 심리상태, 경험을 느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신동진, 2022). 공감에 대한 정의는 초기에 인지적 요소(Selman, 1980)와 정서적 요소(Lipps, 1903)에 대해 단일적 차원으로 정의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이준섭, 손정민, 2018; 최지민, 2015; Bohart & Greenberg, 1997; Eisenberg & Stryer, 1987; Feshbach & Feshbach, 1982; Hoffman, 1977; Davis, 1994). Davis(1994)는 공감의 구성 요소를 4가지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Davis는 공감의 구성 요소를 근거하여 인지적요소로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로 분류하고, 정서적 요소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으로 분류하였다.

공감능력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은 공감의 형태를 관계 맺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여 들어오시는(Rifkin, 2010)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다(창 2:7; 출 6:7). 따라서 공감은 초월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일로 재구성하여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회복과 재창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감정적, 인지적, 영적인 능력이자 실천원리라고 할 수 있다(김종구, 2016; 이재현, 2017; 이향순, 2019).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

랑의 공감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마 14:13-21; 막 1:41-45; 눅 9:1-10; 요 6:1-14; 딤후 3:4). 예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과 긍휼(*σπλαγχνισμοι*)로 인간의 아픔에 직접 동참하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셨다(이향순, 2019).

사도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공동체의 동고동락을 강조하며, 로마교회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타인들의 고통에 참여하여 공감하고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얻을 것을 권고한다(롬 12:14-16; 고후 12:9).

성경적 세계관으로 공감을 살펴보면, 공감은 출생과 동시에 인간의 몸, 마음, 영 안에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메커니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공감하고 공감 받는 존재로서 영적, 관계적, 공동체적, 실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초월적 갈망을 추구한다(이향순, 2019). 그리고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될 때 인간다움이 지속되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공감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이윤희, 2016).

공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야에서 공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공감을 단일 차원으로 보지 않고 보다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윤희, 2016, 전용찬, 2018; Bohart, Greenberg, 1997; Cuff et al., 2014; Davis, 1994).

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 수준과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소미, 2007; 김해진, 이명선, 2015; 정명실, 2014; 정명실, 2015; 정민, 2015; 정혜선, 이기령, 2012; 지은주, 2014; 최지민, 2015; 홍기묵, 2004)). 그리고 한국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스트레스 감소에 깊은 관련이 있음이 연구되었다(김지영, 1995; 김현옥, 2014; 박은숙, 1997; 박향진, 2012; 이경주, 1999; 정혜선, 이기령, 2015; 최미정, 2005). 또한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문제해결 능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박은희, 2018; 신다솔, 2018, 채명옥, 2016), 다문화 이해 및 문화적 역량과 관련 연구(양선이, 2013; 이창금, 2015; 조미경, 2015; 박재순, 2013; 황혜영, 2015)가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그 외 자아상태, 타인인식, 자존감(강명옥, 2015; 김인숙, 이수진, 2017; 김지미; 김진 최수경, 2015; 이지영, 2012; 정민, 2015)에 관련 된 연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감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관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성숙도와 의사소통을 매개로하는 연구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생

들이 영향력 있는 복음전도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감 능력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제시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에 본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심리적 안녕감 의미와 선행연구

안녕감(well-being)은 삶의 여러 영역을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다(Diener et al., 1999; Keyes & Lopez, 2002). 철학적 입장에서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분류되고 있다(Ryan & Deci, 2001).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 (1984)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개념이며,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에 의해 처음 제기 된 용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재력을 발휘하여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고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Jahoda, 1958; Ryff, 1989).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이나 만족감과 같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흐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행복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오운선, 2019).

Ryff와 Keyes(1995)는 심리적 안녕감의 의미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Alport(1961)의 성숙(maturity), Buhler(1935)의 기본적 삶의 경향성(basic life tendency), Erikson (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psychosocial development stage), Jung(1933)의 개인화(individuation), Maslow(1968)의 자기실현, Neugarten(1973)의 성격변화(personality change), Rogers(1961)의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fully functioning person) 개념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한다(서정우, 2019). 그리하여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자가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성장의 합이라고 하였다(Ryan & Deci, 2001; Diener, Oishi, & Lucas, 2003).

기독교 상담학적 측면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본 Wilkinson(2006)는 샬롬(shalom)이라는 단어가 유사하다고 하였다. Duchrow와 Liedke(1989)는 샬롬이 단순한 평화적 상태가 아닌 인간의 본질에 속한 근본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고, 강경미(2015)와 강연정(2007) 또한 샬롬의 상태가 안녕감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에 샬롬의 개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샬롬은 쇠람(shaw-lam)을 기본 어근로 하고 있으며, 단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

는 것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적, 관계적, 영적으로 전인적인 회복과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강경미, 2015; 강연정, 2007).

샬롬은 신약에서 *εἰρήνη*로 사용되는데, 에이레네(*εἰρήνη*)는 평안 그 자체인 완성적 의미에서의 상태(state)를 의미한다(요 14:27). Wolterstorff(1983)에 따르면 샬롬은 개인적, 관계적, 영적으로 전인적인 회복과 온전함을 의미하기에 심리적 안녕감의 자기수용, 자율성, 개인적 성장과 같은 자기실현적 입장과 유사하다고 하였다(강경미, 2015; 강연정, 2007). 즉, 샬롬의 관계적 측면과 환경 통제력 그리고 영적 측면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유사개념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세대에서 노년 세대까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상으로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전주희, 2019). 기본심리에 대한 욕구(이연실, 서인균, 2015; 김정란, 변은주, 2017; 이정화, 2021; 이호길, 2017; 지혜, 2022)에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의 여러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허지은, 2004; 신주연, 이윤아, 2007),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및 타당화 연구(양병한, 2003; 류정희, 이명자, 박정희, 2007; Ryff & Keyes, 1995)등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정주희, 2019). 하지만 영적 성숙과 관련 된 기독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적 측면에서 공감능력을 독립 변수로 하는 연구로서 신앙적 자원의 매개변수와 소통의 채널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서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3) 신앙 성숙도 의미와 선행연구

신앙 성숙(faith maturity)은 지(知)·정(情)·의(意) 영역에서 신앙이 균형 있고 바람직 상태로 성숙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오윤선, 2016),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Gerald May(1982: 33)는 신앙성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Craig Ellison(1983: 330-340)은 “신앙성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삶의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Oswald Sanders(2007)은 신앙성숙은 하나님께로부터 후한 대우를 받은 자신이 남을 대할 때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즉,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내적 자질인과 동시에 이타 주의적 정신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국내 학자 가운데서 조은희(2013: 29-34)는 신앙성숙에 대해서 일반은총으로는 보편적인 성숙을 말하고, 특별은총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면으로부터 급격한 성숙을 촉진하고 완성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억범(2013)은 신앙성숙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대인관계에 의미와 목적을 두는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인 면을 포함하는 신앙의 정도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준선(2011)은 신앙성숙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레 11:45).

신앙의 '성숙'에 대한 가장 근접한 성경적 개념(출 19:6, 19:2, 20:26)은 '거룩', '성결', '완전', '온전' 등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수, 2009: 23-40).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단어를 포괄하는 신학적 개념을 성화(sanctification)라고 할 수 있다(오운선, 김미숙, 2018). 신앙성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며 신앙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자기중심적 삶에 벗어나 타인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성숙하기 원한다(엡 4:13; 골 3:10; 히 5:11-14; 딤후 4:7). 신앙성숙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고(욥 42:5-6),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벧후 1:3-4).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롬 12:2-3; 엡 4:21-24). 궁극적으로 참된 신앙성숙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마 22:37).

이러한 개념들을 살펴 볼 때 신앙성숙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와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총체적이며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황인숙, 2014). 그리고 신앙성숙 과정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전인격이 균형을 이루며 발달한다. 뿐만 아니라 신앙성숙은 단번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신앙성숙도에 관련 된 국내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정체성(최윤영, 2012),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우향숙, 최은실, 2016), 우울과 내적 학습동기(김재영, 정숙희, 2016), 진로태도성숙(정숙희, 이해주, 2016), 사회적응력(최준호, 2017), 자아 탄력성과 직업가치관(유병길, 2008), 정서표현(김정희, 정희정, 2017), 신앙 성숙과 경건(신언혁, 2004; 이종은, 2018; 허문경, 2018), 신앙성숙과 사회 공동체 문제(이유

리, 2002; 허문경, 2018) 등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성숙과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와 순차적 매개변인을 검증하는 연구가 실시 되지 못하고 입을 알 수 있다.

#### 4) 의사소통능력 의미와 선행연구

의사소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송신인과 수신인 간에 서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대인관계를 성립시키고 발달시키는 매커니즘이다(Cooley, 1956). 사람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간다(최홍규, 2000). 의사소통의 영어 표현인 ‘communication’은 공통, 또는 공유를 의미하는 라틴어 ‘communis’에서 비롯되었다. 어원적 의미로는 하나 이상의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들과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등을 ‘공유화’ 또는 ‘공통화’ 하는 행동이다. 이런 ‘공유화’ 또는 ‘공통화’ 과정은 상징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징에는 일차적으로 언어가 사용되나 몸짓과 표정 같은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함된다(오운선, 2019). 이러한 상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김정탁, 2004). 특히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사람의 삶을 의사소통 과정과 분리해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이상화, 1992). 그리고 의사소통은 인간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며 의사소통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성원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결정 전체, 즉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전달되는 과정이다(Simon, 1957).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으로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나 전달 과정이다(유영주 외, 2009; 최세영 외, 2017).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면(최숙철, 2001), 첫째, 긍정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잠 15:17; 엡 4:15; 빌 4:8; 벧전 3:10). 둘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요구한다(잠 15:23). 셋째,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적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잠 17:9; 엡 4:31-32; 골 3:13). 넷째, 서로 원만한 관계 관계형성을 위해서 따뜻한 언어사용을 하여야 한다(잠 16:24). 다섯째, 극단적인 언어표현이나 행동을 금해야 한다(약 4:1). 여섯째, 격려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잠 16:24). 일곱째,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잠 18:13, 15). 여덟째, 분노의 감정을 다루어야 한다(잠 15:1, 19:11). 아홉째, 상대의 허물을 덮고 용서 할 것을

편면하고 있다(엠펙 4:31-32) (이경순, 1998; 이향례, 2005; 정순례, 2014).

의사소통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해숙과 이상순(2003)은 1998년에 대학생의 심리 경향과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유형의 차이에 관하여, 장유미(2003)는 2000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의사 소통 8회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이정아, 2015). 최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김영숙 (2014)의 기독교 예비영어 교사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 배은주 (2015)의 기독교 청소년의 아버지 의사소통과 관련 된 연구, 손영철, 전지은 (2019)의 기독교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유형 연구, 송윤희(2019)의 예비기독교교사의 위한 의사소통이 있다. 그리고 유재성, 남순식 (2019)의 교회 중직자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김정준 (2021)의 SNS를 활용한 주중 성경학교 교사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례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감능력과 관련 된 의사소통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 능력의 직·간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 한 K대, S대, Y대에 재학 중인 기독교 대학생과 J, K, P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글(Google)에서 제작한 온라인 설문(web)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총 418명의 응답자 중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된 8명을 제외하고 4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공감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공감능력척도는 Davis(1983)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를 전병성(2003)이 번안하고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① 전혀 아니다 의 1점부터 ⑤ 매우 그렇다 의 5점으로 계산된다. 전병성( 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84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표 1>과 같이 Cronbach's .914로

나타났다.

### (2)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심리적 안녕감의 척도는 Ryff(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PWBS)를 김명소 등(2001)이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정, 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6문항 6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점 척도이며 최저 46 점부터 최고 230 점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Ryff(1989)의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alpha$ 는 .86에서 .93 이었으며,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전체도구 Cronbach's  $\alpha$ 는 .91 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표 1>과 같이 심리적 안녕감 Cronbach's  $\alpha$ 가 .868로 나타났다.

### (3) 신앙 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신앙성숙도 척도는 Rodney Basset(1981)이 제작한 'The Shepherd Scale'를 황동한(2011)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김신우, 2018). 설문지는 총 30문항이며, 하위 구성 요소로는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 차원으로 각각 10문항으로 배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성숙도가 높은 것이다. 김신우(2018)의 연구에서의 Chronbach's  $\alpha$ 는 .812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 에서는 <표 1>과 같이 Cronbach's  $\alpha$ 가 .945로 높게 나타났다.

### (4) 의사 소통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의사소통능력 척도는 Rubin(1991)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에서 제시한 8가지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Hur(2003)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한 포괄적 대인의사소통능력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김명숙, 2019).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하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alpha$ =.84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Cronbach's  $\alpha$ 가 .814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구분	하위 변수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공감 능력	인지적	관점취하기	7	1, 3, 4*, 6, 7, 10, 12	.914
		상상하기	7	2, 5, 8*, 11, 14, 24, 30,	
	정서적	공감적 관심	8	12, 15, 16, 17, 19, 21, 26, 29	
		개인적 고통	8	9, 18*, 20, 22*, 23, 25, 27*, 28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8	3, 8, 12*, 19, 24, 26*, 39, 42	.868	
	긍정적대인관계	7	4*, 9*, 13, 20*, 27*, 38		
	자율성	8	5, 10*, 15, 21*, 29, 33*, 36*, 43		
	환경 통제력	8	1, 6*, 14, 16*, 25, 30, 40*, 44		
	삶의 목적	7	7*, 11*, 18*, 23*, 28, 32, 35		
	개인적 성장	8	2*, 17, 22*, 31, 34*, 37, 41*, 45		
신앙 성숙도	인지적	10	1, 2, 3, 5*, 6, 9*, 11, 14*, 25, 29*	.945	
	정의적	10	4, 10, 12, 13*, 15, 21, 22, 23*, 24*, 26		
	의지적	10	7, 8*, 16, 17, 18*, 19, 20, 27, 28*, 30		
의사소통능력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841	
전체문항		121			

\* 역채점 문항

### 3) 자료분석 기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주요 통계기법은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측정변인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여 척도와 왜도를 살펴봄으로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하였다. 다섯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을 잘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측정모형 분석(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법칙타당도,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 지수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PROCESS 4.0 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추정하였다.

### 3. 연구의 결과분석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다음 <표 2> 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100명(24.39%), 여자 310명(75.61%)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230명(56.10%), 2학년 62명(15.12%), 3학년 72명(17.56%), 4학년 46명(11.22%)이었다. 계열별 분포도는 인문계열 192명(46.83%), 자연계열 166명(40.49%), 이공계열 40명(9.76%), 예체능 12명(2.93%)이었다. 신앙생활 기간은 1년 미만 40명(9.76%), 3년 미만 76명(18.54%), 5년 미만 28명(6.83%), 7년 미만 36명(8.78%), 기타(모태신앙, 10년 이상) 230명(56.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은 부모님 모두 생존 344명(83.90%), 편모 가정 34명(8.30%), 편부 가정 24명(5.85%), 부모님 안 계심 8명(1.95)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N=410)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00	24.39
	여자	310	75.61
학교형태	2년제	10	2.44
	4년제	400	97.56
학년	1학년	230	56.1
	2학년	62	15.12
	3학년	72	17.56
	4학년	46	11.22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전공	인문계열	192	46.83
	자연과학	166	40.49
	이공계열	40	9.76
	예체능	12	2.93
신앙연수	1년 미만	40	9.76
	3년 미만	76	18.54
	5년 미만	28	6.83
	7년 미만	36	8.78
	기타(모테신앙, 10년 이상)	230	56.1
가정환경	부모님 두 분 생존	344	83.9
	편모 가정	34	8.3
	편부 가정	24	5.85
	부모님 안 계심	8	1.95

## 2) 관측변수의 정규성 검정

본 연구의 정확한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변인들 간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검증하였다. 왜도가 0이고 첨도가 1일 때 완전한 정규분포를 이룬다. 그리고 왜도의 기준은 절대 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기준은 절대 값이 8에서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해석한다(Kline, 2005).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이 왜도 및 첨도의 절대 값의 기준을 만족했으므로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하겠다.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410)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감 능력	관점취하기	1.00	5.00	3.568	.941	-.353	-.374
	상상하기	1.33	5.00	3.899	.845	-.655	.178
	공감적 관심	1.00	5.00	3.831	.752	-.779	.977
	개인적 고통	1.50	5.00	3.935	.751	-.623	.591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앙 성숙도	인지적	1.10	5.00	3.981	.965	-.476	.558
	정의적	1.20	4.90	3.485	.937	-.294	-.797
	의지적	1.00	5.00	3.38	1.047	-.337	-.744
의사 소통 능력	의사소통1	1.00	5.00	3.991	.768	-.588	-.327
	의사소통2	1.00	5.00	3.963	.856	-.398	-.662
	의사소통3	2.00	5.00	4.326	.653	-.768	-.110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1.00	5.00	3.512	.878	-.425	-.485
	긍정적대인관계	1.29	5.00	3.867	.797	-.834	.117
	자율성	1.75	4.75	3.137	.495	.065	.507
	환경 통제력	1.75	4.88	3.474	.763	-.014	-.688
	삶의 목적	1.57	5.00	3.648	.755	-.421	-.517
	개인적 성장	1.00	5.00	4.134	.947	-1.015	.533

###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모형에 의해 구성된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표 4>와 같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감능력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점 취하기는 상상하기( $r=.796, p<.01$ ), 공감적 관심( $r=.742, p<.01$ ), 개인적 고통( $r=.682, p<.01$ ), 신앙성숙도의 인지적( $r=.479, p<.01$ ), 정의적( $r=.502, p<.01$ ), 의지적( $r=.494, p<.01$ ), 의사소통능력( $r=.553, p<.01$ ),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r=.278, p<.01$ ), 긍정적 대인관계( $r=.375, p<.01$ ), 자율성( $r=-.159, p<.01$ ), 환경 통제력( $r=.375, p<.01$ ), 삶의 목적( $r=.348, p<.01$ ), 개인적 성장( $r=.207, p<.01$ )로 나타났으며, 자율성은 부적(-)상관으로 나타났고 그 외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상하기는 공감적 관심( $r=.721, p<.01$ ), 개인적 고통( $r=.708, p<.01$ ), 신앙성숙도의 인지적( $r=.427, p<.01$ ), 정의적( $r=.473, p<.01$ ), 의지적( $r=.436, p<.01$ ), 의사소통능력( $r=.321, p<.01$ ),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r=.321, p<.01$ ), 긍정적 대인관계( $r=.401, p<.01$ ), 자율성( $r=-.187$ ), 환경 통제력( $r=.412, p<.01$ ), 삶의 목적( $r=.344, p<.01$ ), 개인적 성장( $r=.257, p<.01$ )으로 자율성만 부적(-)상관으로 나타났고, 그 외 모두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관점취하기는 개인적 고통( $r=.747, p<.01$ ), 신앙성숙도의 인지

적( $r=.509, p<.01$ ), 정의적( $r=.534, p<.01$ ), 의지적( $r=.484, p<.01$ ), 의사소통능력( $r=.511, p<.01$ ),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r=.294, p<.01$ ), 긍정적 대인관계( $r=.351, p<.01$ ), 자율성( $r=.145, p<.01$ )), 환경 통제력( $r=.365, p<.01$ ), 삶의 목적( $r=.368, p<.01$ ), 개인적 성장( $r=.291, p<.01$ )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개인적 고통은 신앙성숙도의 인지적( $r=.485, p<.01$ ), 정의적( $r=.480, p<.01$ ), 의지적( $r=.444, p<.01$ ), 의사소통능력( $r=.503, p<.01$ ),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r=.323, p<.01$ ), 긍정적 대인관계( $r=.273, p<.01$ ), 자율성( $r=-.186$ ), 환경 통제력( $r=.371, p<.01$ ), 삶의 목적( $r=.423, p<.01$ ), 개인적 성장( $r=.252, p<.01$ )로 나타났으며, 자율성만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을 나타냈다. 신앙성숙도의 인지적은 정의적( $r=.948, p<.01$ ), 의지적( $r=.919, p<.01$ ), 의사소통능력( $r=.477, p<.01$ ),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r=.404, p<.01$ ), 긍정적 대인관계( $r=.269, p<.01$ ), 자율성( $r=-.154$ ), 환경 통제력( $r=.450, p<.01$ ), 삶의 목적( $r=.470, p<.01$ ), 개인적 성장( $r=.319, p<.01$ )로 나타났으며, 자율성은 부적(-)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외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신앙성숙도의 정의적은 의지적( $r=.901, p<.01$ ), 의사소통능력( $r=.522, p<.01$ ),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r=.466, p<.01$ ), 긍정적 대인관계( $r=.355, p<.01$ ), 자율성( $r=.169, p<.01$ ), 환경 통제력( $r=.501, p<.01$ ), 삶의 목적( $r=.513, p<.01$ ), 개인적 성장( $r=.408, p<.01$ )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미 하였다. 신앙성숙도의 의지적은 의사소통능력( $r=.409, p<.01$ ),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r=.427, p<.01$ ), 긍정적 대인관계( $r=.283, p<.01$ ), 자율성( $r=.158, p<.01$ )), 환경 통제력( $r=.463, p<.01$ ), 삶의 목적( $r=.453, p<.01$ ), 개인적 성장( $r=.345, p<.01$ )로 모두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의사소통능력은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 $r=.599, p<.01$ ), 긍정적 대인관계( $r=.640, p<.01$ ), 자율성( $r=.174, p<.01$ ), 환경 통제력( $r=.644, p<.01$ ), 삶의 목적( $r=.518, p<.01$ ), 개인적 성장( $r=.586, p<.01$ )로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심리적 안녕감에서 자아수용은 긍정적 대인관계( $r=.573, p<.01$ ), 자율성( $r=.495, p<.01$ )), 환경 통제력( $r=.775, p<.01$ ), 삶의 목적( $r=.635, p<.01$ ), 개인적 성장( $r=.767, p<.01$ )로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자율성( $r=.333, p<.01$ )), 환경 통제력( $r=.562, p<.01$ ), 삶의 목적( $r=.482, p<.01$ ), 개인적 성장( $r=.515, p<.01$ )로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자율성은 환경 통제력( $r=.355, p<.01$ ), 삶의 목적( $r=.302,$

$p < .01$ ), 개인적 성장( $r = .326, p < .01$ )로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환경 통제력은 삶의 목적( $r = .669, p < .01$ ), 개인적 성장( $r = .531, p < .01$ )로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삶의 목적은 개인적 성장( $r = .448, p < .01$ )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의미 수준을 나타냈다.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공감 능력	1	1												
	2	.796**	1											
	3	.742**	.721**	1										
	4	.682**	.708**	.747**	1									
신앙 성숙	5	.479**	.427**	.509**	.485**	1								
	6	.502**	.473**	.534**	.480**	.948**	1							
	7	.494**	.436**	.484**	.444**	.919**	.901**	1						
소통	8	.553**	.583**	.511**	.503**	.477**	.522**	.490**	1					
	9	.278**	.321**	.294**	.323**	.404**	.466**	.427**	.599**	1				
심리적 안녕감	10	.375**	.401**	.351**	.273**	.269**	.355**	.283**	.640**	.573**	1			
	11	-.159**	-.187**	-.146**	-.183**	-.154**	.169**	.158**	.174**	.495**	.333**	1		
	12	.375**	.412**	.365**	.371**	.450**	.501**	.463**	.644**	.775**	.562**	.355**	1	
	13	.348**	.344**	.368**	.423**	.470**	.513**	.453**	.518**	.635**	.482**	.302**	.669**	1
	14	.207**	.257**	.291**	.252**	.319**	.408**	.345**	.586**	.767**	.515**	.326**	.531**	.448**

\*\*  $p < .01$

#### 4)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 (1) 집중 타당성 검증

처음으로 확인한 집중 타당성은 잠재변수로 표현된 구성개념을 측정변수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한다. 집중 타당성은 수렴 타당성이라고도 하는데, 검증 방법은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값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유의성 및 AVE를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증했다.

표준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s) 값은 최소 .5이상 .9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으며, .7이상의 요인부하량은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때, 필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유의수준은 .05미만, C.R.(Critical ratio) 1.96을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우종필, 2012). 반면, AVE는 .5이상이면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Hair(2009)의 방법을 사용하여 AVE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따른 각 경로에 대한 모수 추정치와 AVE를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466에서 .969의 범위에 있었으며 모든 경로는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AVE는 공감능력 .805, 신앙성숙도 .919, 의사소통능력 .681 심리적 안녕감 .689로 모형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공감능력을 구성한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817에서 .876의 범위 내에 있으며,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측정변수인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 잠재변수인 공감능력의 실제 값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VE 값은 .805로 관측변수들의 분산 중 80% 공감능력이라는 구성개념으로 설명됨을 의미한다. 개념 신뢰도는 .942로 확인되었다.

둘째, 신앙성숙도를 구성한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936에서 .969의 범위 내에 있으며,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측정변수인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이 신앙성숙도라는 잠재변수의 값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VE 값은 .919로 관측변수들의 분산 중 92%가 신앙성숙도라는 구성개념으로 설명 가능함을 의미한다. 개념 신뢰도는 .971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한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676에서 .800의 범위 내에 있으며,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AVE 값은 .681로 관측변수들의 분산 중 68%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으로 설명됨을 의미한다. 개념 신뢰도는 .864로 확인되었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466에서 .835의 범위 내에 있으며,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측정변수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잠재변수의 값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VE 값은 .689로 관측변수들의 분산 중 69%가 결혼안정성이라는 구성개념으로 설명 가능함을 의미한다. 개념 신뢰도는 .927로 확인하였다.

개념신뢰도(C.R.)를 통해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문항내적일치도를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평균분산추출(AVE)은 <표 5>과 같다. 일반적으로 개념신

되도는 .70 이상(배병렬, 2017)을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면 수렴타당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념신뢰도 공감능력은 .942, 신앙성숙도는 .971, 의사소통능력은 .864, 심리적 안녕감은 .927로 나타났다. <표 5>과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과 개념 신뢰도는 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5> 측정변수 경로계수(N=410)

잠재변수	관찰변수	Estimate		S.E.	C.R.	AVE	개념 신뢰도
		B	$\beta$				
	→ 관점취하기	1					
공감 능력	→ 상상하기	.896	.876	.041	22.009***	.805	.942
	→ 공감적 관심	.777	.853	.037	20.984***		
	→ 개인적 고통	.742	.817	.038	19.417***		
	→ 인지적	1					
신앙 성숙	→ 정의적	.832	.969	.016	52.611***	.919	.971
	→ 의지적	.898	.936	.022	41.603***		
	→ 의사소통1	1					
의사 소통 능력	→ 의사소통2	1.160	.800	.074	15.721***	.681	.864
	→ 의사소통3	.726	.676	.056	12.871***		
	→ 자아수용	1					
	→ 대인관계	.651	.664	.045	14.603***		
심리적 안녕감	→ 자율성	.284	.466	.031	9.113***	.689	.927
	→ 환경통제력	.785	.835	.036	21.801***		
	→ 삶의 목적	.656	.705	.041	16.053***		
	→ 개인적성장	.893	.766	.048	18.453***		

\*\*\*  $p < .001$ , B=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 표준화된 회귀계수

## (2) 법칙타당성 검증

법칙 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은 이론을 바탕으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방향성이 이론과 같고, 상관 정도의 유의성을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 $r=.516$ ,  $p < .01$ ), 의사소통능력( $r=.544$ ,  $p < .01$ ), 심리적안녕감( $r=.341$ ,  $p < .01$ )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신앙성숙도는 의사소통능력( $r=.508$ ,  $p < .01$ ), 심리적 안녕감( $r=.472$ ,  $p < .01$ )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의사소통능력은 심리적 안녕감( $r=.700$ ,  $p < .01$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6〉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N=410)

구 분	공감능력	심리적 안녕감	신앙성숙도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1			
신앙성숙도	.516**	1		
의사소통능력	.544**	.508**	1	
심리적 안녕감	.341**	.472**	.700**	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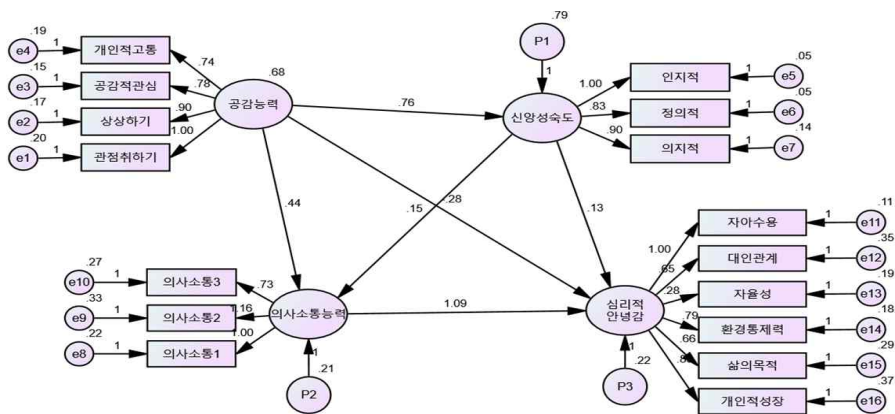
5)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변인별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변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chi^2=578.726(df=98, p<.001)$ , RMR=.050, RMSEA=.120, TLI=.877, CFI=.899로 적합도를 보였다.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모형의 적합도

구 분	$\chi^2$	df	RMR	RMSEA	TLI	CFI
연구모형	578.726	98	.050	.120	.877	.899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순차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첫째, 가설의 최종모형인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대한 신앙 성숙도 및 의사소통 능력의 순차적 매개 모형에 대한 모든 직접경로 검증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경로는 유의 수준 .05이하에서 유의하였으며, 각 경로의 표준화 된 경로계수는 공감능력에서 출발하여 신앙성숙도( $B=.761, \beta=.576, p<.001$ ), 의사소통능력( $B=.440, \beta=.552, p<.001$ ), 심리적 안녕감( $B=-.277, \beta=-.282, p<.001$ ), 신앙성숙도에서 의사소통능력( $B=.148, \beta=.245, p<.001$ ), 심리적 안녕감( $B=.127, \beta=.170, p<.05$ ), 의사소통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 $B=.1093, \beta=.886, p<.001$ )까지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공감능력, 신앙성숙도, 의사소통, 심리적 안녕감이 부분매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8> 경로계수 직접경로 유의성(N=410)

경로		B	$\beta$	S.E.	C.R.
공감능력	→ 신앙성숙도	0.761	0.576	0.067	11.384***
	→ 의사소통능력	0.440	0.552	0.052	8.505***
	→ 심리적 안녕감	-0.277	-0.282	0.073	-3.805***
신앙성숙도	→ 의사소통능력	0.148	0.245	0.036	4.137***
	→ 심리적 안녕감	0.127	0.170	0.042	3.023*
의사소통능력	→ 심리적 안녕감	1.093	0.886	0.110	9.955***

\*  $p<.05$ , \*\*\*  $p<.001$ , B=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표준화된 회귀계수

둘째, 본 연구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신앙성숙도의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직접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모든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  $p<.001$ 였으며, 구체적으로 공감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계수( $B=.201, p<.001$ )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에서 신앙성숙도의 경로( $B=.762, \beta=.575, p<.001$ ), 신앙성숙도에서 심리적 안녕감( $B=.282, \beta=.369, p<.001$ ) 경로 모두 유의했다.

<표 9> 신앙성숙도 경로 유의성

경로		B	$\beta$	S.E.	C.R.
공감능력	→ 신앙성숙도	.762	.575	.067	11.355***
공감능력	→ 심리적 안녕감	.201	.198	.065	3.092***
신앙성숙도	→ 심리적 안녕감	.282	.369	.048	5.937***

\*\*\*  $p<.001$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했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공감능력에서 신앙성속도를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경로인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검증을 실시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B=.198, p<.001$ ), 간접효과( $B=.212, p<.001$ )( 총효과( $B=.410, p<.001$ ) 및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공감능력은 신앙성속도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 결과의 약 26%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신앙성속도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매개효과) 및 SMC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공감능력 → 신앙성속도 → 심리적 안녕감	.198	.212	.410	.259

셋째, 본 연구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의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통해 공감능력에서 의사소통능력 경로와 의사소통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는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 $p<.001$ )했다. 그리고 공감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에서는  $p<.05$ 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감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계수( $B=-.220, p<.05$ )로 부정(-)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경로( $B=.552, \beta=.694, p<.001$ ), 의사소통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 $B=1.163, \beta=.941, p<.001$ ) 경로로 유의했다.

<표 11> 의사소통능력의 경로 유의성

경로	B	$\beta$	S.E.	C.R.
공감능력 → 의사소통능력	.552	.694	.046	11.933***
공감능력 → 심리적 안녕감	-.220	-.224	.073	-2.997*
의사소통능력 → 심리적 안녕감	1.163	.941	.011	10.607***

\*\*\*  $p<.001$ , \*  $p<.05$ , B=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표준화된 회귀계수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했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공감능력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경로인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검증을 실

시했다. 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B=-.224, p<.001$ ), 간접효과( $B=.653, p<.001$ ) 총효과( $B=.429, p<.001$ ) 및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의 부분적인 매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 결과의 약 64%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의사소통능력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매개효과) 및 SMC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공감능력 → 의사소통능력 → 심리적 안녕감	-.224	.653	.429	.643

넷째, 순차적 매개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 총효과 및 다중상관자승(SMC) 값을 제시했다.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순차적 매개를 통한 심리적 안녕감 결과 직접효과( $B=-.282, p<.001$ ), 간접효과( $B=.712, p<.001$ ), 총효과( $B=.430, p<.001$ )이었다. SMC 값을 통해 공감능력에서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의 결과의 66%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 <표 1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3> 순차적 모형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매개효과) 및 SMC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공감능력 → 신앙성숙도 → 의사소통능력 → 심리적 안녕감	-.282	.712	.430	.661

### III. 닫는 글

#### 1. 연구의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심리적 안녕감, 신앙 성숙도, 의사소통능력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감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

하고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함으로써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과정을 구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 의사소통능력,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에 대해 직접경로 검증 결과가 유의 수준 .05이하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첫 번째 연구문제가 지지되었다. 공감능력에서 출발하여 신앙성숙도( $B=.761, \beta=.576, p<.001$ ), 의사소통능력( $B=.440, \beta=.552, p<.001$ ), 심리적 안녕감( $B=-.277, \beta=-.282, p<.001$ ), 신앙성숙도에서 의사소통능력( $B=.148, \beta=.245, p<.001$ ), 심리적 안녕감( $B=.127, \beta=.170, p<.05$ ), 의사소통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 $B=.1.093, \beta=.886, p<.001$ )까지 모두 유의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 수준과 대인관계 능력, 심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고소미, 2007; 김혜진, 이명선, 2015; 정명실, 2014; 정명실, 2015; 정민, 2015; 정혜선, 이기령, 2012; 지은주, 2014; 최지민, 2015; 홍기목, 2004)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둘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는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p<.001$ )했으며, 구체적으로 공감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계수( $B=.201, p<.001$ )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에서 신앙성숙도의 경로( $B=.762, \beta=.575, p<.001$ ), 신앙성숙도에서 심리적 안녕감( $B=.282, \beta=.369, p<.001$ ) 경로 모두 유의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신앙성숙도는 정서표현(김정희, 정희정, 2017), 감정문제(신인혁, 2004; 이종은, 2018; 허문경, 2018), 사회문제(이유리, 2002; 허문경, 2018)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셋째, ‘기독교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공감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경로계수( $B=-.220, p<.05$ )로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공감능력에서 의사소통능력의 경로( $B=.552, \beta=.694, p<.001$ ), 의사소통능력에서 심리적 안녕감( $B=1.163, \beta=.941, p<.001$ ) 경로로 유의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의사소통 능력이 기독교인의 심리적 안녕(배은주, 2015)과 공감(손영철, 전지은, 2019; 송윤희, 2019)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넷째,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은 공감능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순차적 매개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순차적 매개를 통한 심리적 안녕감 결과 직접효과( $B=-.282, p<.001$ ), 간접효과( $B=.712, p<.001$ ), 총효과( $B=.430, p<.001$ )로 나타났다. 이는 SMC

값을 통해 공감능력에서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의 결과는 66%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의사소통 수준과 심리적 안정((정명실, 2015; 정민, 2015; 지은주, 2014; 최지민, 2015; 홍기목, 2004) 그리고 신앙성숙 (배은주, 2015)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 의사소통능력,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의 삶의 목표인 신앙성숙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및 행복한 삶의 요소인 심리적 안녕감에 공감능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둘째, 신앙성숙도는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앙성숙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과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의사소통은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신인관계 및 인간관계의 의사소통이 자신과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넷째, 공감능력은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순차적 매개를 통한 심리적 안녕감 결과 직접효과( $B=-.282, p<.001$ ), 간접효과( $B=.712, p<.001$ ), 총효과( $B=.430, p<.001$ )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감능력에서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력이 66%로 나타남으로 순차적 매개관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신앙성숙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순차적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능력을 통한 연구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신앙 성숙도의 중요성이 규명됨으로 온전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 성숙도가 간과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현장에서 심리 및 신앙 성숙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유용함을 가지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가 기독교인들의 공감능력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구성과 기초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자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 의의를 가진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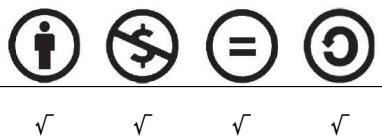
첫째, 본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기독교대학을 대상으로 국한하였기에 한국의 모든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신앙성숙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서 방어적 태도를 보임으로 실제보다 과장 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질적 연구와 실험연구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에 국한했으나 연령을 확대하여 장년층, 노년층, 부부, 특수층 등 좀 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공감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 향상과 영적 성숙 및 의사소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2년 0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11월 02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09일



## 【참고문헌】

- 강경미 (2015). *살롬의 성경적 고찰과 현대적 함의*. 김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연정 (2007). *영적 안녕감과 관계 성숙을 위한 기독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L.J Crabb과 H. Clinebell의 기독교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영희 (2011).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19). *대학생의 도형심리유형, 의사소통능력,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 서호찬 (2018). *대학생의 도형심리 유형, 긍정심리자본, 의사소통능력 간의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6), 355-364. <http://dx.doi.org/10.5762/KAIS.2018.19.6.355>
- 김성희 (2013). *예수의 공감 사역 - 마가복음의  $\sigma\lambda\alpha\chi\chi\nu\iota\zeta\omicron\mu\alpha\iota$ 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20(3), 685-720.
- 김신우 (2018).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성숙도가 대인관계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2014). *기독교 예비영어교사의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교수방안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43, 69-98.
- 김은임 (2016). *대학생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공감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준 (2021). *SNS를 활용한 주중 성경학교 교사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사례연구*. **기독교교육정보**, 71, 195-224. 7(3), 459-483.
- 김종윤, 고영희 (2018). *대학생의 장애인 자원봉사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장애수용태도, 공감능력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919-939.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9.919>
- 김지선 (2015).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명실행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김금미 (2017). *직장인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명실행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4), 431-451. <http://dx.doi.org/10.15703/kjc.18.4.201708.431>

- 김해진, 이명선 (2015). 한국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간호교육학회지**, 21(2), 237-245.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37>
- 나은영 (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익명성,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極化)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2(1), 93-101.
- 박성희 (2015). **공감**. 서울: 학지사.
- 박혜연 (2019). 역량중심의 체육과 표현활동수업 실천하기: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역량기능의 요소 및 적용방안 탐색.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8(1), 247-258.
- 배은주 (2015). 기독교 청소년의 아버지 의사소통 유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기능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1), 59-81.
- 서보경 (201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분노조절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우 (2019). 기독교인의 수치심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햇빛트리 니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영철, 전지은 (2019). 기독교가정 부부의 대화시간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유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3), 121-144. <http://dx.doi.org/10.23909/KJCC.2019.08.30.3.121>
- 송윤희 (2019). 예비기독교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및 리더십 역량 분석. **성경과 신학**, 89, 165-191.
- 신동진 (2022). 호텔직원의 공감능력과 직업소명의식, 고객지향성,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간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31(3), 1-22.
- 신문귀 (2016). 공감의 학제적 담론에서 공감신학의 실천으로. **신학과 실천**, 52, 827-866.
- 신언희 (2004). 소명의 교사직으로서 교회학교 자원봉사가에 대한 고찰. **기독교와 교육**, 12, 46-57.
- 신현석, 안선희, 최보운, 신원학, 이준희, 정우진, 정주영, 김민정, 주휘정, 엄준용 (2010). 대학 입학 전형요소로서 대학 인재상의 활용방안 탐색-입학사정관제에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HRD 연구**, 12(1), 265-291.
- 오윤선 (2011).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청소년 분노 조절하기**. 서울: 예영B&P.
- 오윤선 (2014). **힐링과 행복 코칭**. 서울: 예영B&P.

- 오윤선 (2016).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이해**. 서울:예영B&P.
- 오윤선, 김미숙 (2018). 기독교 대학생의 수용행동이 신앙성숙도와 강점인식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6(1),127-161. <http://dx.doi.org/10.17841/jocag.2018.26.1.127>
- 오윤선 (2019). **행복코칭심리학**. 서울: 예영B&P.
- 오윤선 (2021). 기독교 대학생의 삶의 의미 및 영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긍정정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9(2), 197-224. <http://dx.doi.org/10.17841/jocag.2021.29.2.197>
- 유재성, 남순식 (2019). 교회 중직자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4), 145-172. <http://dx.doi.org/10.23909/KJCC.2019.11.30.4.145>
- 이미화 (2010).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17(11), 139-158.
- 이봉희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순 (2005). 유아의 공감 발달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9, 239-266. <http://dx.doi.org/10.20926/ETPIYC.2019.4.1.2>
- 이은아 (2017). 대학생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공감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3(5), 149-168. <http://dx.doi.org/10.24159/joec.2017.23.5.149>
- 이정관 (2021).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기독교교육논총**, 68, 113-140. <http://dx.doi.org/10.17968/jcek.2021..68.004>
- 이종은 (2018). 기독교인 예비보육교사의 소명의식, 진로결정성,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신앙과 학문**, 23(1), 121-157. <http://dx.doi.org/10.30806/fs.23.1.201803.121>
- 이준섭, 손정민 (2018). 대면채널 판매원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CRM 성과와 판매성공에 미치는 영향: 고객 지향성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23(4), 95-115.
- 임광명 (201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6(3), 127-141. <http://dx.doi.org/10.12653/jecd.2019.26.3.0127>
- 임윤서, 안윤정 (2016). 대학생의 잠재된 차별의식 드러내기 - 차별 대상과 편견

- 성찰에 대한 질적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6(4), 104-146.
- 정순례 (2014). 기독교 중년부부의 의사소통유형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성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윤 (2020). 무용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성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선, 현수경 (2005). 대학생들의 인간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학생생활연구**, 21, 23-41.
- 최은숙 (2015).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 교육적 의미. **어문학**, 12, 19-213.
- 최지민 (2015). 초등교사의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이 교사 부모 간 의사소통 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진, 이은주 (2012).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본간호학회지**, 19(2), 261-26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 황동한 (2011). 하나님 이미지가 자아존중감과 신앙성숙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R. E., Dubinsky, A. J., & Mehta, R. (2014). *Personal selling: Building customer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6th ed.). Dubuque, IA: Kendall Hunt.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06). Emerging Adulthood: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pp. 3-1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hart, A., & Greenberg, L. (1997).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ooley, C. H. (1956). *Social organization: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Ehrlich, P., & Ornstein, R. (2010). *Humanity on a tightrope: Thoughts on empathy, family, and big changes for a viable futur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on, C. W. (1983). *Saying goodbye to loneliness and finding intimacy*.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 Escalas, J. E., & Stern, B. B. (2003). Sympathy and empathy: Emotional responses to advertising drama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4), 566-578.
- Greenspan, S., Barenboim, C., & Chandler, M. J., (1976). Empathy and pseudo-empathy: The affective judgments of first-and third-grad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9(1), 77-88.
- Hoffman, M. L. (1977). Empathy, its development and prosocial implication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5, 169-217.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2002). How automatic and representational is empathy, and wh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5(1), 38-39.
- Iannotti, R. J. (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s on role 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 Jeremy, R. (2010). **공감의 시대**(이경남 역, *The empathic civilization*). 서울: 민음사. (원전 2009 출판).
- Kohut, H. (1959). Introspection, empathy, and psychoanalysis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 of observation and theor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7(3), 459-483.
- Lawrence, L. (2007). Applying transactional analysis and personality assessment to improve patient counseling and communication skills.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71(4), 234.
- Lipps, Theodor (1903). *Ästhetik: Psychologie des Schönen und der Kunst*. Hamburg: L Voss.
- May, G. M. (1982). *Care of mind-care of spirit: Psychiatric dimensions of spiritual direction*.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 Muncer, S. J., & Ling, J. (2006).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empathy quotient(EQ)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111-1119.
- Rifkin, J. (1980). *Entropy: A new world view*. New York: Viking.
- Rifkin, J. (2009).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of crisis*. New York: Penguin Group.
- Rodney, L. B. (1981). The Shepherd Scale: Separating the Sheep From Goa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 (4), 335-351.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mitt, C. S., & Clark, C. (2006). Sympathy. In J. E. Stets, & J. H. Turner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motions* (pp. 467-492). New York: Springer.
- Schulenberg, J. E., Bryant, A. L., & O'Malley, P. M. (2004). Taking hold of some kind of life: How developmental tasks relate to trajectories of well-being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1119-1140.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ical progress. *American Psychologist, 9*, 99-102.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Ward, J., Cody, J., Schaal, M., & Hojat, M. (2012). The empathy enigma: An empirical study of decline in empath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8*(1), 34-40.
- Zimmer, R. J., & Hugstad, P. S. (1981). A contingency approach to specializing an industrial sales force. *Journal of Personal Selling & Sales Management, 1*(2), 27-35.

[Abstract]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Faith Matur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Oh, Yoon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faith matur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10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1.0 and AMOS 26.0 programs, and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set to 5%. The research results verifi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mpathy ability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affects the maturity of faith, communication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it was verified that faith maturity affects empath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it was verified that communication affects empathy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urth, empathy ability is a result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sequential mediation of faith matur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The direct effect is  $B=-.282$ ,  $p<.001$ , and the indirect effect is  $B=.712$   $p<.001$ . And the total effect was  $B=.430$   $p<.001$  and the final explanatory power was 66%, so the sequential mediation relationship was verifi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means that both the direct effect and the indirect effect and the sequential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nd parameters have been prove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has drawn very meaningful results.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empathic ability, psychological well-being, faith maturity, communication ability

---

\* Korean Bible University / Professor